

WENXUECHUANGZUOYU
BIAOXIANSHOUFFA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김경석 저

연변인민출판사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김경석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정옥

책임교정: 신분희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文学创作与表现手法: 朝鲜文 / 金庚石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7

ISBN 978-7-5449-0646-3

I. 文… II. 金…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文学研究-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22114号

文学创作与表现手法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 字数: 27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46-3 (民文)

版次: 2009年7月第1版

2009年7月第1次印刷

印数: 1-7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문학창작과 표현수법》을 펴내면서

《문학창작과 표현수법》은 《민족신문학론》(2007년)의 뒤를 이어 펴내는 이론저서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업에 종사하면서 문예평론을 망라한 다양한 장르의 문예원고들을 편집해온지도 어언간 49년, 거국산하가 환희로 들끓던 자랑스런 북경올림픽경기의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손꼽아 달포가 지나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0돛을 맞이하게 되는 희망의 새해 기축년을 앞두고 문학평론집을 묶고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숨길수 없다. 그것은 해방후부터 문예평론을 써오다가 절필한 선배님들과 이러저러한 연유로 평론집을 엮지 못한 선생님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행운스러운 일이고 또 기자, 편집 사업 여가에 창작에 집념하면서도 짬짬이 평론문을 써온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되기때문이라 하겠다.

혹자는 기자, 편집 사업 여가에 시나 가사를 썼다면 몰라도 평론은 언제 썼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기실 문학에 뜻을 두던 시절에 평론문은 많이 읽었어도 평론을 쓰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고 50년대에 대학에서 《문학개론》이나 《문선습작》을 배우면서도 작품을 잘 써보려는 생각은 했지만 전문 문

2.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학평론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60년대 《연변일보》의 종합성문예부간 편집을 맡게 되면서부터 평론원고도 편집하고 손수 평론문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초기에 편집한 것이 시집 《아침은 찬란하여라》에 대한 정판룡선생의 평론 “다양한 제재와 형식”, 연극 “흥기보”에 대한 박상봉선생의 평론 “장엄한 력사적투쟁의 화폭”, 화룡현문공단공연에 대한 권철선생의 평론 “소박하고 다채로운 공연” 등을 비롯하여 조득현, 김진, 황봉룡, 리광순 등 여러 선생들의 평론들로서 그 대부분이 연극, 영화, 경극, 가극이나 시, 음악, 무용들에 대한 평론문들이었고 손수 집필한 평론 역시 영화평론 “영웅적인민의 형상”이거나 서평 “불멸의 이름, 숭고한 사상”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1979년 12월 당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후부터는 문예부간의 언론보도를 강화하고자 “문예단론”커트를 설치하고 임범송선생의 단평 “문예법칙과 예술민주”를 비롯하여 서일권, 김기형, 김봉웅 등 평론가들과 작가, 시인들의 단평을 편집하여 실었으며 1984년도에는 문예평론좌담회를 소집하고 12월에 “해란강”부간을 문예평론특집으로 꾸리고 전국권의 “시창작에 대한 몇가지 소견”, 최봉석의 “개혁이 물려준 농민의 새 노래—텔레비죤예술영화 ‘약수동의 새 노래’를 보고”, 김동훈의 “농촌개혁을 형상화한 작품” 등을 편집하여 발표함으로써 독자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으며 뒤이어 부간의 주요한 자리를 문예평론에 할애하군 하였다.

이번 《문학창작과 표현수법》에 엮어넣은 39편의 문장들은 그 대부분이 편집실천속에서 문예리론을 자신의 실무 및 창작실천에 결부하여 쓴 평론문들이다. 열독의 편리를 위하여 도합 3개 부분으로 엮고 제1부 운문편에는 민요의 표현수법으로부

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시가인 시조에 대한 초보적인 학습심득을 적었으며 가사의 일부 형태와 언어구사에서의 특성들을 서술하고 인물을 묘사대상으로 하는 시를 비롯하여 칠리시, 서경시, 영물시, 광고시, 랑송시, 가두시들에 대한 천박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2부 산문편에는 소설, 꿈뜨로부터 시작하여 주로 수필을 언급하면서 수필과 기타 산문류와의 공통성 및 부동성을 대비하는 가운데 감상문, 잡문, 수기, 기행문, 단상, 만필, 잡필 등 장르를 곁들여 언급하고 수필언어의 몇가지 특성들을 서술하고나서 희곡의 형상창조수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는 창작자문편이자 부록으로서 80년대 《연변일보》문예부간에 “창작실전화”라는 커트를 달고 문예동향과 창작문제를 언급했던 대화식글들을 참고로 제공하고자 모두어놓았다.

《문학창작과 표현수법》의 일부 글들은 평론이라기보다 체득성문장 같기도 한 미숙한 점들이 있겠지만 독자들 특히는 후배들에게 유익한 자양분이 다소라도 스며있다면 다행으로 간주하려 한다.

선생님들과 문우들 그리고 광범한 독자들로부터 진중한 조언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마감으로 이 책자의 출판에 관심을 돌려주신 연변인민출판사 리성권사장님과 여러 편집선생님들에게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바이다.

김경석

2008. 11. 30.

연길 자택에서

차 례

《문학창작과 표현수법》을 펴내면서	1
--------------------------	---

제1부 운문편

민요의 몇가지 표현수법	3
시조 초장 첫구의 가변성	20
시조 풍미와 종장	26
1950년대 시조창작의 발단	35
특성에 맞는 시조를 쓰자	39
가사의 서두어휘	45
가사의 후렴형태	52
가사언어의 통속성	61
가사언어의 음악성	70
가사언어의 정확성	81
가사언어의 생동성	88

2.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가사언어의 개괄성	95
가사에서의 수사학적 반문, 호소, 감탄	105
가사에서의 반복법의 리용	112
가사언어구사에서의 음절 감축과 가침	125
보람찬 삶의 3부곡	133
서경시의 수사법	137
영물시의 삼위일체	142
시의 묘사대상과 인물의 정신세계	146
선동에 강력한 랑송시	154
서정과 철리의 유기적결합	161
광고시와 그 계시	168
시대와 공존한 가두시	173

제2부 산문편

소설의 주인공과 성격창조	181
꿈뜨의 개성적특징	194
수필과 감상문을 가르는 척도	203
수필에서의 조미료	217
수필과 잡문	223
수필과 수기	229
수필과 기행문	237
수필과 단상	242
수필 · 만필 · 잡필	248
수필언어의 몇가지 특성	256
연극 형상창조의 기본수단	277

제3부 창작자문편(부록)

실화문학에 대한 대화	297
소설의 서두는 어떻게 쓸것인가?	300
근간에 론평되는 작품	304
“보고도 모를 시”	306
시가발전의 길을 두고	309

제 1 부
운 문 편

민요의 몇가지 표현수법

민요는 력대 로동인민의 구두로 창작되어 구두로 류전되다가 부단한 가공과 탁마를 거쳐 서사화된 시문학의 한 형태이다.

민요는 그 내용으로부터 보면 로동인민의 사상과 감정, 의지와 요구 및 념원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으므로 강렬한 사상성과 전투성 및 현실성을 갖고있다. 위정의 득실이거나 풍속의 성쇠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전진하는 력사의 발자욱을 뚜렷이 보여주며 인민대중의 희로애락메아리를 진실하게 울려준다. 그리하여 “시대의 거울”이라거나 “대중의 목소리”라고들 말하기도 한다.

민요는 그 형식으로부터 보면 민족화, 대중화, 구두어화의 특색을 갖고있으므로 하여 백성들이 듣기를 즐기고 부르기 좋아하는 민속문학으로 알려지고있다. 훌륭한 뜻이 구현되고 형상이 선명하며 소박하고도 자연스러우며 강건하고도 청신하며 구절이 짧고 언어가 생동하며 절주가 명쾌하고도 조화롭기에 랑송이나 가창할 때면 생동하게 들려온다. 그러므로 훌륭한 민요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쉽고 외워지기 쉬우며 대중속에 널리 류전되게 된다.

.4.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민요는 그 표현방법으로부터 보면 다양한 수사학적묘사수법들을 적용하여 사물을 생동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강렬한 감정을 토로하며 사상을 뚜렷이 도드라지게 표현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으로서의 예술적매력을 과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에 잠기게 하고 깊은 뜻을 음미해보게 한다. 특히 민요의 표현수법을 잘 장악하고 창작실천에 운용하는것은 민요를 잘 이해함에 리로운것은 물론 우리 민족의 시가를 가일층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래에 민요의 상용표현수법 몇가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조선민족의 민요들에서는 동일량의 음절수의 련속 혹은 교차반복에 의해 운률을 산생하는 음절작시법에 좇아 재치있는 반복법, 비유법과 인민들의 생활체험에 기초한 형용어, 쌍관어 그리고 대조법, 대구법과 과장법, 문답법 등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수법들을 사용하고있다.

첫째로 민요의 반복적수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반복법이란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표현의 예술적효과를 높이는 묘사표현수법이다. 민요의 반복법에는 어음반복, 련속적반복, 교차적반복, 두어중첩, 절어중첩, 시행반복 등 형태들이 망라되어있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쩔데까
말도 마소 말도 마소
시집살이 말도 마소

-전라도민요 “시집살이”

썰는다 썰는다 보리쌀 썰는다
보리쌀 썰는줄 변연히 알면서
무슨 쌀 썰는가 왜 묻고 가나
—동북민요 “보리방아”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올 길을 왜 왔던고
—전라도민요 “진도아리랑”

네 오려무나 네 오려무나
날 보려거든 네 오려무나
—평안도 룡강민요 “메나리”

보다싶이 이상에서 인용한 어음 즉 2음절 “형님”, 3음절 “썰는다”, 4음절 “왜 왔던고”, 5음절 “네 오려무나”가 각각 세번씩 반복함으로써 운률과 음악적억양을 조성하면서 언어의 뜻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표현성을 높이고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경기도민요 “도라지타령”

둘러주소 둘러주소
일심 받아 둘러주소
두르길랑 내 두를게
메기길랑 잘 메기세
—황해도민요 “망절소리”

보다싶이 이것은 반복법에서의 연속적반복이다. 동일량의

.6.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음절때 즉 3음절 “도라지”와 4음절 “둘러주소”가 연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운률과 음악적억양을 조성하면서 역시 뜻을 강조하고 표현성을 높이고있다.

물길러/ 가세/ 물길러/ 가세
저 고개/ 너머로/ 물길러/ 가세
—강원도민요 “물동이타령”

신농씨/ 같은 밭에/ 후직씨/ 뿌린 종자
력사에/ 같은 밭은/ 순임금/ 유품이라
—“례산모내기소리”

이것은 반복법에서의 교차적반복이다. 같지 않은 음절때 즉 3음절 “물길러”와 2음절 “가세”가 “3·2·3·2”로 교차하면서 반복하였고 또 3음절 “신농씨”와 4음절 “같은 밭에”, 3음절 “후직씨”와 4음절 “뿌린 종자”가 “3·4·3·4”로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이 두 민요는 부동한 음절때들의 규칙적인 교차적반복에 의해 운률을 조성하면서 표현력을 높이고 있다.

아슬아슬 추운 병은 누가 준 병
아슬아슬 추운 병은 임자가 준 병
—동북민요 “각시타령”

이 집 성주 초가면 초가성주 모시고
이 집 성주 와가면 와가성주 모시세
—동북민요 “집짓는 소리”

보다싶이 이것은 두어중첩이다. 민요의 첫 행 첫머리, 두

번째 행의 첫머리에서 같은 말인 “아슬아슬”과 “이 집 성주”를 각각 반복함으로써 중첩현상을 일으키면서 운률을 살리고 있다. 이런 두어중첩은 그 뜻을 강조하며 운률을 살리는 역할을 논다.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충청도민요 “둥둥 내 사랑”

뒤동산 진달래는 붉게만 피는데
가만히 살짜꿍 꽃따러 오렴
꽃따러 오렴 꽃따러 오렴
가만히 살짜꿍 꽃따러 오렴
—평안도민요 “따라나 오려무나”

이것은 겹어중첩이다. 첫 민요의 매 행 마지막끝에 같은 말 “내 사랑”과 둘째 민요의 매 행 마지막끝에 “꽃따러 오렴”을 각각 되풀이한 반복법이다. 이런 반복은 “4·4”조(혹은 “4·3”조)나 “7·5”조(혹은 “6·5”조)의 운률을 살리면서 남녀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강조하고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구나 좋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경기도민요 “풍년가”

보다싶이 이것은 시행반복이다. 이 민요에서는 시행인 “금

.8. 문학창작과 표현수법

수강산에 풍년이 왔네”를 반복함으로써 민요의 운율을 살리고 아름다운 강산에 풍년이 들었음을 강조하고있다.

둘째로 민요의 비유적수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비유법이란 사물현상을 본래의 의미로가 아니라 형상적의 미로 표현하는 수사학적수법이다. 민요에서의 비유법은 보통 한 사물현상을 다른 사물현상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선명히 표현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두 사물현상들은 가깝거나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된다. 비유법에는 직유, 은유, 환유, 풍유 등이 망라되어있다.

우선 직유로부터 보기로 하자. 직유는 사물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형상적으로 표현하고자 그와 유사성을 가진 다른 사물현상과 직접 비교하는 비유법의 한 형태로서 비유법에서도 제일 단순한 형태라고 한다.

너와 나의 만난 사랑 허물없는 부부사랑
화우동산 목단화 같이 평퍼지고 고운 사랑
녕평바다 그물 같이 얹히고 맺힌 사랑
은하직녀 천금 같이 울울이 이은 사랑
남창북창 노적 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조선남부지방민요 “사랑가”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고나
—서도지방민요 “이팔청춘가”

보는바와 같이 “화우동산 목단화 같이”, “녕평바다 그물